



선교에 관한 돈보스코의 꿈/4



**사**랑하는 선교사, 살레시오 회원 그리고 살레시오 선교를 돕는 친구들에게!

로마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선교사들을 위한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돈 보스코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이번 달에는 1886년에 꾸, 온 세상을 두루 다니던, 그분의 4번째 꿈의 의미를 되새기라는 초대를 받습니다.

그 꿈은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에 각지에 새로운 선교사를 파견하면서 현실이 됩니다.

2010년은 42명의 새로운 선교사중 대부분이 4번째 꿈에서 보았던 땅 -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대양주-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125년이 지난 오늘 돈 보스코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줍시다.

*Vedlav Clement*  
클레멘트 바츠라브 신부  
선교 평의원

대양주의 젊은이들이 돈 보스코에게 큰 소리로 <<오세요! 도와주세요!>>하고 외칩니다.

1885년 돈 보스코는 꿈을 꾸는데 그 내용은 끝없는 선교에 대한 살레시오회의 미래였다. 돈 보스코는 이 꿈을 1885년 7월 2일 저녁 평의회에서 이야기하고 해석해 주셨다. (완전한 내용은 MB XVIII, 643-647; 혹은 <http://sdl.sdb.org> (살레시오 전자 도서관)을 보라).



<< 내가 무지 높은 산 앞에 있는 것 같았다....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있는 것 같고,... 광활한 사막이 있는 아프리카 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마침내 내가 호주에 있는 것 같았다. ... 대륙이 아니라 많은 섬들이 모여 있는 어떤 곳이고,

주민들의 얼굴과 특징들이 다른 곳이었다. 그 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 오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가 너무 멀고 또한 그기에 있는 물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러나 돈 보스코와 살레시오 회원들을 향해 팔을 벌리며 “오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말했다. 왜 당신들의 선조들이 시작한 일을 끝내지 않습니까? - 많은 사람이 중단 했지만; 내가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은 사나운 맹수들 사이를 지나 살레시오 회원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왔다. 그리고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내가 정확히 구별하지는 못했지만 저 멀리 수많은 섬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내 생각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섭리가 살레시오 회원들이 갖게 될 선교지의 한 부분을 보여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들의 수고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느님의 손길이 계속하여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은 왜하며, 무엇을 하나?

2010년 9월 2-26일

새로이 파견되는 선교사들을 위한 며칠간의 교육은 루치아노 오도리코 신부가 시작했다. 프란치스 알렌체리 신부는 이를 2주간으로 늘렸고, 이제는 25일간의 교육이 이뤄진다. 이렇게 긴 교육이 정말로 필요한가?

오늘날 선교지로 파견되는 선교사들에게 열심한 신앙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며 오히려 확고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몇 년간만 떠나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동기를 주의 깊게 조사해 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 또한 파견되는 선교사들이 새로운 민족에게로 편입되기 위해 적절한 도구를 가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믿고 존중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개방된 태도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 존중받고 효과적이며 겸손하고 분별력 있는 현존이 될 것이다. 물론 선교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고 관구와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과 힘을 제공 한다;



보배로운 자신의 신앙과 문화 그리고 자신을 선물로 내어 바치는 행위가 관구와 지역 공동체를 풍요롭게 한다. 그러나 준비 없이 도착한 새로운 사람은 방해와 불편거리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현실과 서로 대화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선교사들을 위한 교육은



선교사로 파견되기 직전에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서론, 인류 문화학, 선교학 (로마) 그리고 살레시오학 (토리노와 끌레로 이어지는 살레시오 성지에서의 영적 여정). 기도과 증인들의 경험담, 체험 나눔, 개인 묵상 그리고 같이 공부하고 떠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즐거운 삶을 통해 새로운 선교사들은 식별과 심화에 도움을 받는다.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로 떠나는 자신의 숨은 동기를 찾아내기도 한다.

준비과정은 선교사가 떠나는 관구에서 수년 전부터 선교사로 살기에 합당하고 필요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동반하면서 식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선교사무국에서는 식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미 선교성소의 식별을 위한 기준을 발행했었다. 분명히 말하자면, 지역 공동체나 관구에서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만들고, 관계를 맺는데 문제를 만드는 등, 이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견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문화 차이에서 오는 충격이나 새로운 환경 그리고 선교지의 고된 일과 등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못될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소속된 관구에서는 떠나는 선교사가 이런 종류의 교육과 모임을 계획하고 참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선교사들의 교육은 새로운 선교지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한편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관구도 그들이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교회적 환경을 잘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선교사가 시작하는 처음의 몇 년 동안 영적 동반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어떤 선배 선교사가 그의 선교의 첫 걸음에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적어도 일 년 동안에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제대로 된 토착화를 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나 수도 연합회에서 계획한 모임에 참여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참으로 모든 살레시오 선교사는 그 자체로 수도회를 위해 큰 보물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 선물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시작부터 제대로 동반하고 싶은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Corso 2009

Alfredo Maravilla, SDB  
선교국의 새선교사교육과정 책임자



## 살레시오 선교 지향

### 이탈리아의 살레시오 공동체를 위해

이탈리아의 모든 살레시오 공동체들이 이탈리아에서든 민족들의 선교를 위해서든, 외국에서의 여름동안의 체험이나 선교 봉사를 위해 선교 그룹을 조직하고 동반하는 일을 다시 시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탈리아의 6개 관구가 선교에 대한 엄청난 유산- 5대륙에서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일하는 수 백 명에 달하는 선교사들과 우리의 사업체 안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10여개의 선교 도움 단체들 (Matto Grosso, Amici 야 Sidamo, Comunita' Missioni Bologna, VIS - volovtariato internazionale, gruppi missionari delle Ispettorie SDB & FMA, etc). 잡지 'Gioventu missionaria' (1923-1975)에 기록된 젊은 선교사들의 체험, Piemonte (Ivrea, Colle Don Bosco, Cumiana, Rebaudengo, Penango ...), 지방에서 나온 수 천 명의 선교 지원자들이 세계 교회의 선교에 함께했던 일들. 젊은이들의 선교 의식을 촉진하기 위해 9월의 마지막 일요일 선교사들의 파견 때 행했던 국가 차원의 선교사 축제인 Haram-bee를 기억하고 재현하는 일.

